2026년 11월 2주차 평촌교회 소그룹 나눔지

리얼크리스찬 (9)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1 - 14)

✝ 말씀 나누기

1.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불안으로 인해 더 통제하고, 간섭함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요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올라오게 하는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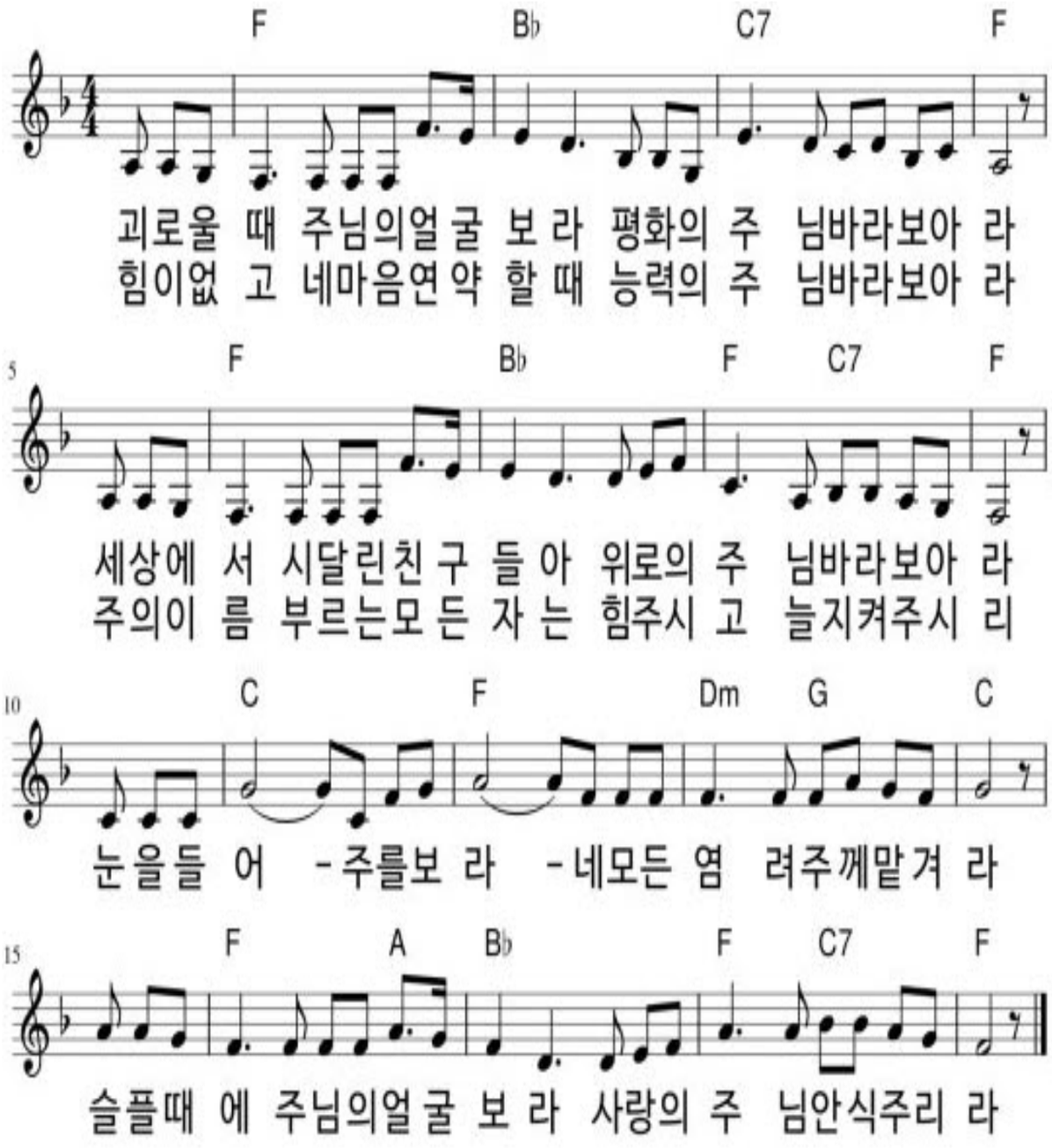
✝ 함께 기도하기

1.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내 뜻대로 이끌려 하기보다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2.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눈앞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도 다시 염려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며, 섬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

괴로울때 주님의 얼굴보라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염려를 내려놓는 믿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물 한 잔은 가볍지만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염려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소한 걱정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을 지치게 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염려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본론 1| 주장 대신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보아야 할 양 무리를 맡기셨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의 자녀와 가족, 직장 동료와 교회 안의 믿음의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영혼들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양 무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마음이 주장하는 태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무리의 참된 목자가 아니라 주님께 위탁받은 부목자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겸손히 섬길 때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본론 2|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7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끝까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기도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도 다시 염려를 짊어진다면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붙잡고 있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붙잡기보다 기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론 3 |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더라도 현실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두려움을 일으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9절은 깨어 근신하며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 염려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을 붙잡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움 앞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장 대신 섬김을, 염려 대신 기도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